

# 청소년의 비행또래에 대한 구조와 본질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Structure and Essence of Deviant Peer Experiences of the Teenagers

장정연

세계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Jung-Yeon Chang(zummer@nate.com)

###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비행또래에 대한 체험을 현상학적으로 탐구함으로써 비행또래의 근원적인 구조와 본질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의 비행또래에 대한 체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는 인간의 생활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네 실존체를 중심으로 비행또래의 본질의미를 탐구하였다. 자료 수집은 심층면담, 참여관찰, 내용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van Manen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네 실존체로 구조화시키고 그 흐름에 맞추어 비행또래에 대한 구조와 본질을 분석하고 글쓰기를 시도하였다. 청소년의 비행또래에 대한 구조를 해석학적 현상학적으로 분석하여 28개의 구성의미와 30개의 현상, 18개의 경험의 구조로 본질적 주제를 산출해 내었다. 참여자들이 경험한 비행또래의 의미는 '경계(境界), 경계(經界), 경계(警戒)'의 경험이다.

■ 중심어 : | 비행또래에 대한 구조와 본질 | 경험 | 해석학적 현상학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eal the essential meaning of deviant peer through Phenomenological approach method on experiences of the teenagers. For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experience world of the teenagers, researcher sought the essential meaning structure about the four Life-world Existentials of constructing human's live-world. Data had been collected through the researcher, the participants' observation, field note, content analysis, as well as in-depth interview with them. Based on an analytical process of hermeneutical phenomenology of van Manen, researcher analysed essential meanings of the data in light of the four Existential categories through separating thematic statement, decision of essential theme and rewriting. The structure of the deviant peer experienced by the teenagers has been analyzed by the hermeneutical phenomenology so as to extract 28 composition meanings, 30 phenomenon and 18 structure of experience. The results examined by each theme are as follow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essential meaning structure of the study participants in the world is the experience of boundary, alert'.

■ keyword : | the Essential Meaning of Deviant Peer | Experience | Hermeneutical phenomenology of van Manen |

## I. 서론

본 연구는 청소년을 통해 비행또래의 속성들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비행또래의 존재함의 방식들, 즉 비행또래의 구조와 본질을 보려는 것이다. 비행또래 속성들의 문제는 오랫동안 청소년복지 분야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로 여겨져 왔다. 연구의 대부분이 속성을 추상화하여 비행또래를 미래의 범죄자나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에서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본질에서 출발하지 않는 학문은 비행또래의 평균적인 이해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음주와 흡연 등의 행동을 하는 또래가 비행또래라고 한다면 이는 차라리 실존적 조건의 하나일 뿐 속성이 아니다. 비행또래에 대해 이미 어떤 표준들을 전제하고 비행또래를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본 연구는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가 개인의 실존성을 무시하고 비행또래를 하나의 물리적 대상으로 다룬다면, 비행또래의 삶을 그 자체로서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실존적 조건들을 놓치게 된다. 비행행동 예방, 재활이라는 기술과 지식체계 속에서 청소년을 도발적으로 닦아 세울 수 있는 조건이 보인다. 그런 조건들 속에 비행또래의 체험세계와 유리된 개입들, 즉 음주, 흡연 등의 문제행동에 관한 예방 프로그램, 대안교실 등은 청소년의 실존 은폐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비행또래는 단순히 흡연과 음주를 하는 행동으로서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청소년으로서 경험하며 사는 것이다. 그들의 행동은 무차별적인 비행또래의 물리적 속성의 하나가 아니라 실존적 조건에 해당된다. 예컨대 청소년 가운데 비행또래라는 균열을 야기시키는 것은 음주와 흡연행동과 같은 특정 행동과 더불어서이며 이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낮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비행또래의 존재규정은 특정 행동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획득되어야 한다. 이미 존재는 세계 및 세계 내 존재자들과 교섭하고 있는 체험들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모든 지향적 체험이 이미 앞서 발견된 세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존재자들과의 실질적인 교섭활동으로 그 안에 언제나 실존적 계기를 지닌다[14]. 실존적 계기와 관련해 하이데거의 현상학은 존재론적 구조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한다. 존재론

적 구조는 실존을 구성하고 있는 그것을 풀어헤쳐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구조 연관을 실존성이라 한다[12]. 우리가 비행또래의 존재함의 방식들, 즉 비행또래의 존재론적 구조를 파악한다는 것은 비행또래의 실존성을 파악한다는 의미와 같다. 우리는 비행또래에 대한 해석들, 또는 상이한 방법으로 규모를 달리하며 비행또래의 행동관계, 가능성, 역량들을 추적하지만, 여전히 물음으로 남는 것이 있다. 과연 비행또래에 대한 해석들이 실존적으로 근원적 차원에서 수행되었는가이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비행또래의 실존적 계기는 무엇인지 근원적 질문을 던져야 할 때이다.

비행또래는 세계 속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다. 이 세계는 특별한 구조를 지니며, 구조를 의미라 한다면, 특별한 구조로서 그들 세계의 의미를 통해 비행또래가 하나의 세계 안에 존재하는 방식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여기서 의미는 어떤 것에 대한 이해가능성이 그것 자체가 두드러지게 주제적으로 시야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그 안에 머물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12]. 안에 머물고 있는 의미를 위해 우리는 구체적인 해석을 하게 된다. 환경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은 자기 자신의 존재인 근원적인 정황적 이해를 선험적으로 가지면서 자신을 포함해 세계 안에서 만나는 존재자들을 경험하는데, 이를 해석의 과정, 실존적 이해, 즉 실존적 해석의 과정이라 한다. 해석은 불투명한 양상에서 주어지는 의미를 구체적인 의미로 바꾸어 가는 과정으로[14], 말과 언어가 현존재의 실존 및 세계를 근원적으로 각인해 줄 수 있다. 이는 비행또래의 실존 및 세계는 선언어적인 것이 아니라 언어적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이데거는 언어가 존재자를 바로 그 존재자로 존재하게끔 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13]. 비행또래의 의미를 근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행또래의 실존 및 세계를 들여다보고 그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그들과 교섭하는 청소년들의 언어를 통해 가능하다. 청소년들이 직접 언급하는 해석의 과정 즉 말을 통해 세계 안에서 만나는 비행또래의 의미로서 비행또래의 본질적 구조 파악은 가능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섭하는 세계를 토대로 비행또래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면서 불투명한 양상에서 주어지는 의미

를 구체적인 의미로 바꾸어 가고자 비행또래의 구조와 본질을 탐구해보고자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비행또래와 현상학

청소년들에게 또래는 사회화와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청소년들은 또래를 통해 특정 현상에 대해 판단하고 행동하는 데 필요한 인지적, 사회적 자원을 얻는다. 반면 청소년기 문제행동에 관여할 위험성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비행또래는 다른 방식으로 중요하게 언급된다. 청소년에게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이 언급되면서 비행또래의 영향력은 더욱 강조되었다. 예컨대 많은 연구들에서[1][4][6][8][10][17] 또래의 압력, 비행또래의 유무, 수, 그리고 비행또래의 지각 정도 등은 부정적인 또래관계 즉 비행또래와의 관계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변수로 자리한다. 그러나 비행또래 현상에 관한 존재론적인 논의 없이 비행또래를 측정 가능한 독립변수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를 드러낸다. 비행또래의 유무, 수, 지각 정도는 단지 지시적 차원의 의미만을 내포하고 있어 비행또래가 가지는 보다 복합적인 구조를 간과할 수 있다. 비행또래는 표시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언어를 나타내는 존재로서 기호들의 체계를 뛰어넘어 의미되는 것의 존재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

존재론적 관점에서 인간에 대한 상이한 태도가 있다면 두 가지를 들 수 있다[18]. 첫째, 한 개인의 비개성적 속성들에 초점을 맞추는 과학적으로 묘사하는 태도이고 둘째, 한 개인이 세계-안에-있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실존적 태도이다. 하이데거는 인식론에서 존재론으로의 전환을 통해 세계로부터 인간이 분리되는 현상을 해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에서 간과한 본질적인 존재양식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비행또래의 존재론적 연구도 속성들에 초점을 둔 실증학문들의 비행또래의 존재적 물음보다 더 근원적이다. 왜냐하면 존재론적 성찰이 경험과학에 토대를 두기 때문이다[18]. 그렇다면 왜 현상학으로만 존재론이 가능한가? 먼저

현존재에 속하는 존재이해는 동일 근원적으로 “세계”와 같은 어떤 것에 대한 이해와, 세계 내부에서 접근 가능하게 되는 그런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이해에도 관계된다[12]. 따라서 비행또래라는 존재론적 구조에 대한 물음을 위해 비행또래에 속하는 존재이해에 ‘세계’와 같은 어떤 이해가 필요하다. 존재론은 우리의 실천적 존재 이해를 말로 옮기려는 시도로[18] 우리가 존재자들의 세계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그 형식과 구조를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것을 요구한다. ‘현상학’이란 표현은 일종의 방법개념으로 철학적 탐구 대상들이 사태 내용적으로 무엇인가가 아니라 오히려 철학적 탐구의 방법을 특징짓고 있다[12]. 즉 ‘사태 자체로’ 현상에 대한 학문이 된다. 현상학이 ‘보이게 해주어야 할 그것은 무엇인가?’, ‘현상’이라고 지칭되어야 할 그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그 본질상 필연적으로 명시적 제시의 주제인가?[12] 이에 대한 답은 바로 존재이다. 즉 존재론은 오직 현상학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존재는 드러난 것의 특징이나 속성이 아니라, 경험되는 모든 것에, 항상 잠재되어 있는 의미 구조이다[18]. 그러므로 우리는 현상의 의미를 연구하듯이 존재를 현상학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실증학문들은 비행또래들의 영역을 대상으로 삼아 경험적으로 연구하지만 비행또래라는 존재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라 모든 있는 것의 구조를 뜻한다. 따라서 비행또래는 드러나는 것의 특징이나 속성이 아니라, 경험되는 모든 것에 항상 잠재되어 있는 의미 구조이다. 현상의 존재는 경험에 잠재되어 있기에 끄집어내져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현상학적 존재론이 일종의 해석의 작업이 된다. 이것이 바로 해석학적 현상학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경험에 잠재되어 있는 비행또래 현상에 관한 존재론적 연구, 하이데거 용어로 현존재, 즉 인간의 존재를 탐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비행또래는 비행과 또래라는 단어의 합성어, 즉 복합 단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래는 나이나 정도가 서로 비슷한 무리를 가리키는 단어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 집단, 모임 회원, 학교나 동네 친구가 여기에 속한다. 비행은 도둑질, 살인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이나 범법행위를 보이는 젊은이들(주로 18세 이하)의 행동을

일컫는 용어로[7] 나쁜 짓을 하는 활동이다. 사회학 사전에서 비행은 실수나 잘못된 행동, 혹은 의무불이행이며,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다. 이는 특정 연령집단의 나쁜 행실만을 지적하지 않으며 사회학과 범죄학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사전에 비취진 비행또래와 달리 사회복지실천에서 어떻게 비행또래라는 존재를 연구할 것인가? 앞서 설명했듯이 현상학으로 연구한다. 자세한 이해를 위해 비행또래라는 실존적 구조를 파악해 본다.

## 2. 비행또래의 구조

비행또래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하이데거의 '세계-내-존재(In-der-Welt-Sein)'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현존재는 '세계-내-존재'라는 존재방식을 갖는다. 이 때 세계는 대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는 구체적 체험의 맥락 또는 주위세계이며 특별한 구조를 지닌다. 그 구조는 '의미'라 부르며 '내-것임'과 '풀어-야-할-문제가-됨'을 연결시키는 기본조건이자 하나의 세계 안에 존재하는 방식이 된다[18]. 비행또래의 실존적 조건, 즉 비행또래의 존재함은 세계-안에-있음의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하이데거의 논리에 근거할 수 있다.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본질적인 근본구조이자 실존범주인 '세계-내-존재'에 주목함으로써 본질과 구조를 파악한다. 물론 본 연구에서 세계는 현존재의 실존론적 규정으로서, 인간의 주관적 인식작용의 산물이 아니라 실존하는 현존재에게 본래적으로 친숙한 의미로 다가오며, 현존재가 세계내부적 존재자들과의 구체적인 교섭을 통해 현존재의 모든 존재가능성을 주고 있는 실존의 '장(場)'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비행또래의 구조와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주변 세계 중 교섭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의 인터뷰를 현상학적으로 접근한다. 단순히 비행또래의 개념 정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비행또래라는 의미가 청소년들의 세계 속에서 어떠한 시간적 의미를 지니는지 보다 입체적인 차원에서 비행또래의 의미를 탐색한다.

그렇다면 비행또래의 구조는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가? 비행또래의 구조는 하이데거나 언급한 현존재의 근본규정성에 근거하여 볼 수 있다. 현존재의 구성들과

그 존재함의 방식은 존재론적으로 오직 시간성과 공간성의 근거 위에서 관계성과 체험된 몸(신체)이 구조로 확정된다[12]. 존재론에 의하면 비행또래는 현상실적으로 빠져 있으며 실존한다는 의미의 공간에서 존재한다. 이는 현존재가 시간성으로서 그의 존재에서 탈자적-지평적 이기에, 현상실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마련된 공간을 함께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12]. 또한 인간이 몸(신체)으로서 존재하는 존재자라는 사실은 인간의 삶과 존재를 둘러싼 모든 철학적 논의들의 자명하고도 회피할 수 없는 전제의 하나로서 미리부터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현존재의 존재의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조건의 하나인 까닭에 오직 몸(신체)을 통해 고통과 기쁨에의 개방성과 운동성을 자신의 존재방식의 하나로서 지니게 된 존재자만이 미래를 향해 자신의 존재를 기획·투사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19]. 가장 근원적인 존재는 몸(신체)으로서 현존함이다. 이것이 바로 해석학적 현상학에서 보고 있는 인간은 세계-내-존재라는 전제 하에서이다. 세계-내-존재는 실존론적이고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세계'라는 큰 구조 안에서 해석되며 몸(신체), 시간, 공간, 관계는 실존 능력의 한 체계이기 때문이다. 이는 비행또래라는 세계-내-존재가 "생생하게 신체적으로" 만나게끔 한다는 의미이며 여기서 만나게 해준 현재에 근거하며 방향 잡혀 있으며 방향 잡으면서 있다[12]. 즉 공간, 시간, 관계, 몸(신체)에 대한 이해는 무엇보다도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며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느냐, 그리고 실존의 구성요소 등의 몸음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 III. 연구방법

### 1. van Manen의 연구방법

van Manen[23]의 연구방법 특징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학, 미술, 사진 등 다양한 현상학적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참여자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실천적인 통찰을 증가시킨다. 둘째, 본질적 주제 분석이 이루어지는 반성의 과정에서 길잡이로서 네 개의 실존체(공간성, 시간성, 관계성, 몸(신체))를 제시한

다. 셋째, 현상학에서 글쓰기란 연구자가 분명치 않은 징후와 희망을 가지고 그에 대한 욕구를 따르는 것이다.

##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십대 청소년 각각 초(7명), 중(8명), 고등학생(5명) 총 20명이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비확률 표집 가운데 Goets & LeCompte[21]가 제시한 준거적 선택방법인 세평적 사례선택(reputational case selection) 방법을 이용하여 선정하였다.

## 3. 자료수집

해석을 위한 자료는 심층면담을 통해 구성했다. 심층면담은 자유로운 비행또래와의 체험을 기술하도록 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했다.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간의 간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가 자기를 표현하는 상호물음의 구조 속에서 진행했다. 심층면담은 집단 별로 2시간씩 1회로 이루어졌다. 면담자료 이외에도 해석의 풍부함과 존재론적 영감의 원천을 위해 문학작품을 자료의 원천으로 삼았다. 시, 소설의 문학작품 분석했고 이를 연구 참여자들과 공유했다.

## 4. 연구의 엄격성

질적 연구는 일반화 혹은 객관화의 연구가 아니라 깊이 문제이며 현상학적 연구에서 존재해명이 중요하다. 실존론적 해석은 존재의 의미, 존재와 진리의 '연관'이 실존의 시간성에서부터 해명되어 있을 때 수행될 수 있기에[12] 비행또래의 실존론적 해석은 비행또래의 의미와 진리의 연관이 실존의 시간성에서부터 해명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해석의 명증성을 위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서로 실존의 물음을 주고받는 구조를 견지하였다. 특히 현상학에서 중시하는 간주관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 5. 자료 분석

현상학적 주제들은 경험의 거미줄 매듭과 같아서 이 매듭을 중심으로 체험들이 쌓이고 의미 있는 전체들이

다[22]. 의미 있는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 주제 분석과 본질적 주제의 결정이라는 두 단계를 거친다. 이를 위해 van Manen의 생활세계의 네 실존체를 구조화시키고 흐름에 맞추어 분석을 위한 글쓰기를 시도하였다.

## IV. 해석학적 현상학 탐구

### 1. 해석학적 현상학

존재론적 연구란 이해를 정리 작업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특징지어진 해석의 한 가능한 양식이다[12]. 해석이란 우리가 이해한 그 무엇인가를 어떠한 것으로서 이해함을 통해 명확하게 만드는 이해의 행위이다[18]. 하이데거가 추구하는 언어는 세계를 지시하는 언어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비행또래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였다. 비행또래라는 존재자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드러내기 위해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는 과정을 거쳤다. 비행또래라는 존재의 의미는 존재자의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시하는 존재연관성 안에서 찾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실존론적 구조 혹은 해석이라 하는 존재함의 한 방식을 van Manen의 방법으로 풀어내기 위해 비행또래의 구조를 공간성, 시간성, 관계성, 몸(신체)으로 구성해 분석하였다.

### 2. 현상학적 질문 형성

청소년의 비행또래의 구조와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 체험하는 비행또래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 3. 실존적 탐구

#### (1) 문학과 예술로부터의 경험적 묘사

문학은 '본질들'에 대한 연구자의 실제적 통찰을 증가시키는 자원이 된다. 현상학은 일반적이고 친숙하고 자명한 것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일상성을 강조한다. 일상성이 실존함의 양식이고 일차적으로 '일생 동안' 현존재를 두루 지배하는 실존의 특정한 방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12]. van Manen[22]은 인간행위, 행동,

의도, 경험 등 생활세계에서 마주치는 그대로 되살리는 생생한 기술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자료의 창조적 도입을 제안한다.

### ① 소설

#### 가. 김하기. 사(師)

“학교도 마찬가지다. 상위 10%는 매사에 모범적이지만 심중팔구는 아무리 몽둥이를 들고 다그쳐도 딴 생각을 하거나 농땡이를 치고 사고를 일으키기 마련인 것이다. 어쨌든 상담을 통해 윤석삼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 믿게 되었다. 모의고사에서 1등을 한 녀석이 어떻게 선생에게 그런 사악한 짓을 꾸짖겠는가 그리고 녀석을 믿게 된 것에는 지금까지 상위권 학생 중에 단 한명도 문제 학생이 없었다는 나의 경험도 한몫 거들었던 것이다.”

김하기[2]는 「사(師)」에서 우범학생을 완력으로 제압하기 위해 학교 규율을 잡아야 하는 선생과 여기에 엮이게 되는 학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일명 ‘긴 세대’ 영어 선생인 김성학은 학생주임으로 학생 중에 윤석삼을 의심하지만 상위권의 학생이라는 이유로 문제 학생에서 제외시킨다. 물론 차후에 의심을 계속 받게 되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영어 선생은 지적(指摘)될 수 있는 학생에서 우선 제외하고 주의(注意)받는 공간에 세우지 않는다. 「사(師)」는 성적이라는 기준에 의해 문제 학생이 본의 아니게 단속과 주목이라는 학교의 경계(警戒)에서 줄타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나. 이상운. 내 마음의 태풍.

“미친 듯이, 미친 듯이”(8면) 공부하라는 교사의 말에 반대로 민기는 미치지 않기 위해 학교에서 “우리들만의 세계”, 즉 “우리를 가둬 놓고 있는 검은 교복과 얼룩무늬 교련복과 삼류 벽화를 불태워 버리고 제멋대로 자유롭게 떠들 수 있는 그런 세계”(14)를 원한다.

이상운[15]의 『내 마음의 태풍』은 1970년대 학교를 배경으로 한다. 연구 참여자인 2010년도 이후 청소년들과는 사뭇 다른 시대이지만 “징계를 받으면 벽에 이름이 붙는다.”는 연구 참여자의 말처럼 소설에서 교실의 환경 정리 판은 40년 전 성적표 붙이는 벽으로 등장한

다. 비행또래 이름이 오르내리는 최적의 공간, 벽이라는 공간이 비행또래의 의미를 탐색할 수 있는 지평으로 다가온다. 교실 뒤편을 덮은 거대한 성적표 장면은 민기와 경민에게 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것 같은 억압과 저항의 세계이다. 벽 속의 이름들이 낯선 세계로 나와 무관한 세계이기를 바라지만 그 벽은 청소년들의 시대를 초월한 시간 속에 존재한다. 또래의 이름이 붙은 공간은 나와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또래의 구조적인 지평이고 청소년들에게 공존하는 경계(警戒)로서 연결된다. 민기는 학교와는 다른 또 다른 세계를 꿈꾸지만 또 다른 세계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의 다른 세계, 즉 경계(境界)를 발산하여 균열된다.

#### 다. 김해원. 열입곱살의 털

“앞머리 5cm, 윗머리 3cm, 뒷머리 3cm인 ‘오삼삼’” “머리칼은 네 자신을 나타내는 징표다. 머리칼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네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과 같다.”(50) “담임은 기록부에 있는 내 성적을 잣대로 내 행동을 평가할 것이다. 선생의 가치기준은 성적표에 있는 과목의 점수다. 선생은 국어가 100점인 학생은 욕을 입에 달고 살아도 언어능력이 폭넓다고 말할 것이며, 수학이 100점인 학생이 싸움질 하면 논리적인데다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까지 갖춘 탓이라 이해할 것이고, 영어가 100점인 학생이 가출을 하면 이 문화에 호기심이 많아 항상 새로운 것을 습득하려 애쓴다고 할 것이다.”(50)

최근의 체벌 규정을 담고 있는 김해원[3]의 「열입곱살의 털」은 체벌방식이 다른 두 선생의 상반된 행동을 그린다. 두발 규제는 하지만 학생부장 오폭두는 체벌을 사용하지 않는다. 학교 규정에 맞는 두발을 하도록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상담실로 불러 반성문을 쓰게 한다. 반면 체육 교사 매독은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에게 어김없이 폭력을 행사한다. 기분 내키는 대로 교육적 의도의 체벌이 아니라 폭력을 휘두른다. 반성문을 쓰게 하는 선생과 폭력을 행사하는 선생은 학생들에게 선생 각각의 비일관된 태도로 다가올 뿐이다. 비행또래는 비일관된 선생의 태도에서 어떤 형태로 실존하고 있을까. “학교 규칙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비행또래는 하지 말라는 행동을 더 한다.”는 연구 참여자의 말이 이 물음에 근접하게 한다. 선생의 다른 처벌 방식

은 어떤 형태로든 청소년들 사이에 엮갈린 행동의 계열로 분산되어 경계(境界)와 경계(經界)를 이루는 지점이 될 수 있다. 하나의 세계 안에서 청소년들이 비행또래와 공존한다면 소설 속 이야기를 통해 그 의미와 존재 방식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된다.

② 시.

가. 유 하. 세운상가 키드의 사랑 1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독한 마음의 열병,  
나 그때 한 여름날의 승냥이처럼 우우거렸네  
욕정이 없었다면 생도 없었으리  
수음 아니면 절망이겠지, 학교를 저주하며  
모든 금지된 것들을 열망하며, 나 이곳을 서성었다네  
(1연) 일부분

세운상가 키드의 사랑 3

세상이 나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에, 태양의 언어 밖에서  
난 노래한다, 박쥐의 눈으로 어둠의 광휘를  
난 무능력한 자이므로, 풍자한다  
호화 양장본 세상의 기막힌 마분지섬에 대하여  
(3연) 일부분

유하[11]는 『세운상가 키드의 사랑』에서 학교에서의 금지된 것들을 열망하며 새로운 세계를 꿈꾼다. 청소년이 속한 세계에서 교섭하는 가운데 비행또래가 경계(境界), 경계(經界), 경계(警戒) 속에서 서성거리는 모습 그대로다. 시는 세상이 나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에, 태양의 언어 밖에서 혹은 학교에서의 일상성과 달리 위반하고 있는 청소년기 삶을 펼쳐낸다. 학교 규율과 질서에서 튕겨져 나간 타자(他者)의 운명이 ‘비정상’과 ‘정상’을 기준으로 판별되고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역할이 정당화되어졌던 당시 현실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어떤 세계 속을 열망하며 실존하려는 비행또래의 모습과도 유사하다. 시는 나와 다른 행동을 하거나 청소년기 금지된 행동을 하는 비행또래에게 이미 설정해 놓은 어떤 기준이 작동하고 있음을 비은폐적으로 표현한다.

나. 이장욱. 기하학적 구도

그는 한없이 환원된다, 단 하나의 점으로,

필사적으로 수평선을 넘어가는 로빈슨 크루소의 뗏목으로,  
국가대표 양궁 선수가 꼬나보는 최후의 표적으로,  
물밀을 투시하며 집요하게 활강하는  
물새의 시선으로,

하지만 케이블 티브이를 주시하는 그의 시선과 무관하게  
새벽의 그는  
또 수많은 표적을 향해 분할된다,  
그의 위장은 마구 뒤섞인 음식물들에 대해,  
그의 혈액은 불규칙한 순환계도에 대해,  
안 보이지만  
미친 듯이 다른 방향을 찾아 증식하는 머리칼과,  
또 발톱의 기하학, 일부분.

이장욱[16]의 『기하학적 구도』는 어떤 사물이 단 하나의 점, 표적, 뗏목, 시선으로 환원되면서 그 시선과 상관없이 사물이 분할되는 과정을 표현한다. 우리는 비행또래를 ‘나쁜 친구’, 나쁜 학생과 같이 하나의 점으로서 고정된 의미로 환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비행또래라는 하나의 범주에서 또 다른 경계들(境界, 經界, 警戒)을 지향하고 있지 않은지 자문해본다. 비행또래의 의미는 실존론적 구조를 통해 하나의 점으로 고정되거나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구조를 지닌 실존론적 형태로 세계에 열어-밝혀져 있다. 세계 속에 존재하는 비행또래는 세계 속의 사물들과 관계하는 실존에서 찾아지고 세계는 구조지어진 지평으로서 분할되는 과정을 거치는 열린 장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이 시를 통해 접혀져 있는 비행또래의 구조와 의미를 펼쳐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다. 안주철. 「나의 국적은 가난이다」

그가 또 웃는다  
다시 자신의 옆 빈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그의 등뒤에서 내가 앉은 의자 옆으로  
그의 빈자리가 바람을 타고 건너온다  
그의 더러움, 그의 역겨움  
그가 웃는다  
몇몇 사람이 나를 내려다보며 멀찍이 서고  
그가 웃는다  
나의 국적이  
내가 앉은 긴 의자 옆에 텅 비어 있다고 (일부분. 21-30행)

안주철[9]은 『나의 국적은 가난이다』에서 내가 앉은 긴 의자 옆에 텅 비어 있음이 나의 국적으로서 또 다른 타자에 의해 선 그어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멀찍이 서 있기에 그 거리는 멀게 다가올 뿐이다. 빈자리는 타자를 둘러싼 어떤 선 밖에 있음이리라. 시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물이 안 좋아 비행또래를 피해야한다.” 혹은 “비행또래와는 선을 그어 끊다.”는 표현과 교차되었다. 비행또래와의 관계에서 소외 및 배제의 기제가 청소년들에게 보이지 않는 경계가 되었을 것이고, 또래들이지만 나쁜 행동을 한다는 기준이 그들을 공간과 시간적으로 분리시킨다. 소외는 빠져 있음의 존재양식을 특징짓고 있는 것으로[12] 시는 비행또래들의 방향과 거리, 위치를 통해 어떻게 비행또래가 실존하고 있는지 즉, 생활 세계가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탐색할 수 있게 한다.

#### 라. 나희덕. 그 복숭아 곁으로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시다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시다

눈부서 눈부서서 알았습시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시다

(일부분, 1연.)

나희덕[5]은 『그 복숭아 곁으로』에서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그러나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알기까지 오래 걸렸음을 고백한다. 그늘이라는 편견에서 평균성이라는 틀에 박혀 보지 못한 의미가 나희덕의 시에 담겨져 있다. 비행또래의 평균적인 이해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었지만 수천의 빛깔처럼 비행또래의 구조와 유형을 발견하는 것은 존재론적 구조에 대한 의미 파악에 한 기점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이 스스로 소외되거나 소외시키는 세계-내-존재

로서 외로운 줄도 몰랐을 그들이 자신을 알려오는 경계의 틀에서 벗어나 ‘사이’의 실존적 의미를 알게 된다. 시는 근원적이지만 흩어져 배열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경험이나 언어들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청소년들의 체험이라는 자기 실존의 해석 과정을 통해 비행또래를 어떻게 의미화 했는지 탐색하게 한다.

#### 마. 최승호. 뿔쥐

처음엔

뿔뿔도 없었다

아무것도 아무개도 없었고

없다는 말이 없었다

있다, 있었다

그런 말은 언제부터 있게 된 걸까?

뿔쥐는

내가 만든 말,

뿔쥐를 그릴 수는 있지만

뿔난 쥐는 어디에도 없다

뿔쥐는 無

[중간 생략. 일부분]

최승호[20]는 『뿔쥐』에서 ‘그런 말은 언제부터 있게 된 걸까?’ 라는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 동시에 ‘처음엔 아무 것도 없었고’ 단지 ‘내가 만든 말’ 이며 ‘어디에도 없다’고 표현한다. 사회과학에서 만들어진 말 속에서 그 말이 언제부터 있었으며 어디에 있었는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봄으로서 연구자는 비행또래의 존재규정이 세계 내 존재자들과 교섭하는 체험들 속에서 이를 수 있음을 상기한다. 비행또래 연구는 상이한 방법으로 규모를 달리하여 접근하고 있지만 여전히 물음이 남는다. 청소년 스스로 비행또래라는 의미를 들여다보면 세계-내-존재로서 비행또래의 구성틀에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시는 비행또래라는 말은 언제부터 있게 된 것이며 우리 스스로 만든 말은 아닌지 자문하게 한다.

## V. 연구결과

### 1. 비행또래의 구조와 본질의 해석학적 반성

청소년의 비행또래에 대한 구조를 해석학적 현상학



적으로 분석하여 28개의 구성의미와 30개의 현상, 18개의 경험의 구조로 본질적 주제를 산출하였다.

(1) 체험된 공간성

분석결과, 연구 참여자의 체험된 공간은 비행또래의 방향과 거리 그리고 위치가 다르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치를 평면도로 보면 비행또래는 경계선(境界線) 안과 밖으로 서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특정한 방식으로의 존재방식은 그들의 세계-내-존재로서 공간에 실존하는 촉발(觸發)적 상황이 무엇인지 다각도로 생각하게 한다.

“저는요. 그래도 지금 호기심이 많은 나이니까요, 한번쯤은 해 볼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계속 빠져들면 안 될 것 같고요, 한 번하고 선을 그어가지고 끊어야 되요. 그렇게, 물이 안 좋아서요.” (sse, 중 1번)

“저는 무시할 거예요.” (jdy, 중 2번), “안 놀 거예요.”

“비행또래는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소문이 좀 안 좋은 애들 이거든요” (jde, 중 3번) “절교해요. 웬지 그런 친구 있으면 밉을 것 같아요.” (db, 초 1번)

비행또래와의 거리감과 방향이 존재하는 공간의 배치는 선으로 그어 피(避)하고자 하는 연구 참여자에게 어떤 기준이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피(避)한다는 의미는 사전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피하다’ 이며 한자로 ‘부딪치지 않게 피하여 지나가다’의 뜻을 지닌다. 그만큼 연구 참여자들에게 비행또래는 경험적으로 멀찍이 있다. 물이 안 좋다 혹은 빠져들면 안 된다는 이유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행또래와 다른 공간에 서 있으려는 연구 참여자들과 비행또래는 서로 연결되는 지점에 서성이게 하는 그 어떤 경계(境界)가 존재하는 것일까?

“가출, 수세미질이요. 교내봉사 2주.다 알려진...지각 벌로 청소하고 벽에 붙이는 거 막 그런거요?” (yds, 중 4번)

아마도 경계(警戒)에 서다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다. 경계(警戒)는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하게 하거나 단속하다’ 는 뜻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벽’이라는 공간을 통해 주의 받는 비행또래들이 교내 봉사 혹은 사회봉사를 받게 되고 결국은 학교가 아닌 징계 받는 공간에서 주목(注目) 받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촉발적 상황은 또 다른 공간으로 언급되고 있었다.

“주위환경 때문에 비행또래와 어울려요. 동네사람들, 아저씨들, 어른들이 욕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걸 따라하는..”(db, 초 1번), “동네 언니오빠들이 많이 욕을 해서. 중학생들이 초등 학교에 놀러오는데 그 욕설이.” (jy, 초 2번). “집안 분위기 환경, 거의 대부분이...부모님이 다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jh, 고 1번)

참여자에게 의하면 비행또래들이 스스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라기보다 또 다른 주위환경이 그들에게 하나의 공간으로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체험된 몸(신체)

연구 참여자들은 비행또래와 다름을 강조하고 있었다. 나와는 다른 행동을 하는 그들을 보면서 비행또래가 나쁜 행동 혹은 나쁜 몸으로서 경계(經界)에 실존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경계(經界)는 ‘옳고 그른 경위가 분간되는 한계’로 시비(是非)나 선악(善惡)이 분간(分擘)되는 한계(限界)를 뜻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담배피우고 술 마시는 등의 몸을 가진 나쁜 몸으로서 비행또

표 1. 체험된 공간성

생활세계	경험의 구조	현상	의미
공간성	경계(境界)에 서 있는 공간	절교하는 공간	방향과 거리가 다른 공간에 있는 비행또래
		선을 그어서 끊는 공간	또래와의 거리감이 존재하다.
		피(避)해야 하는 공간	또래와의 방향이 다른 공간으로 피해 서다
	경계(警戒)에 서 있는 공간	징계로 벽에 이름이 붙는다.	벽이라는 주목(注目)받는 공간에 서다.
비행또래가 될 수밖에 없는 주위 공간	비행또래가 될 수밖에 없는 주위공간에 서다.	비행또래가 될 수밖에 없는 주위환경이 하나의 공간으로 자리하다.	

래들을 반영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비행또래는 나쁜 행동을 권(勸)하는 몸으로 체험하고 있었다.

“화장해요. 몰려다녀요. 그리고 다리 떨고, 담배피고 술 마시고. 껌 씹고 그래요.” (se, 초 3번) “화장하고 머리 자르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노래방가고.” (jy, 초, 2번), “담배피고 술 마시고.” (sb, 초 4번) “욕 잘하는 친구, 나쁜 친구, 싸가지 없는 친구, 날나리, 여자만나고, 돈 뜯는 아이들, 강패, 잘근잘근, 뼈끼, 껌 씹고, 착한아이들 괴롭히는” (yl, 초 5번) “그니깐 무단 결석하고” (wr, 고 2번) “불효자죠.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것 보면 가출하는 아이들, 그런 것으로 방송이 나가는 것보다, 자랑스러운 일로 방송에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이잖아요.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것 보다, 부모님 욕되게 하는 것이니까.” (ch, 고 3번) “걸린 게 아니라 자기 입으로 직접 말 한 건데... 6학년 오빠들이 협박해가지고.” (jy, 초 2번)

비행또래의 행동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경계(經界)가 되는 분기점에서 비행또래와 서 있는 몸으로서 경계(境界)를 지니고 있었다. 이 분기점에서 몰려다는 몸이 되다보니 비행또래가 경계(警戒) 속에서 지적(指摘)당하거나 걸리는 몸이 되어 있음을 참여자들은 체험하고 있었다.

“많이 혼나죠. 지적당해요. 많이 끌려가요. 많이 불려가고. 몰려다니거나 싸울 때.” (ye, 초 6번), “몰려다니거나 싸우거나.” (hj, 초 7번), “선생님께 욕하고 소리 지르고, 반항하고. 억울하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db, 초 1번), “개는 일주일 받는 동안 흡연으로 걸려서, 학교 밖에서 흡연하다가 걸리면 무단외출로 되요.” (jm, 고 4번), “흡연이요. 흡연으로 걸려서 3일이요.” (js,

고 5번), “비행또래들은 몰려다니요. 비행또래는 많이 혼나죠.” (se, 초 3번)

결국엔 학교 안가고 교육센터 가는 몸이 되거나 혹은 반성문 쓰는 몸이 되어 있다고 참여자들은 언급한다.

“학교 안가고 교육 센터 가는 것이요. 그 친구 개는 일방적으로 팬 것이 되어서..일부러 그거(친구 때린 것) 했어요. 가야 되는 건데..말을 잘해서 반성문 쓰고, 방과 후에 남은 걸로 끝났어요.” (ch, 고 3번), “아침에 7시 30분까지 가서 쓰레기 줍고, 그 다음에 집에서 반성문 집에서 쓰고, 엄마한테 도장을 받고, 학생주임 선생님한테 도장을 받고, 학교 끝나고 남아서 벽 닦고. 그 친구는 일주일 받았구요. 개는 한 달 받았어요. (웃음)” (jm, 고 4번)

연구 참여자들은 비행또래가 그 상황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고 보여주는 몸이며 호기심으로 행동하지만 자기 스스로 잘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몸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다보니 비행또래가 주목(注目)은 받을 수 있지만 관심은 받지 못하는 몸이라고 연구 참여자들은 체험하고 있었다. 주목(注目)은 주의 깊게 살피거나 조심하고 경계하는 시선의 의미를 가지지만, 관심은 어떤 일이나 대상(對象)에 흥미(興味)를 가지고 마음을 쓰거나 알고 싶어 하는 상태(狀態)이다. 관심이 주목의 경계보다 특정 방향을 향한 감정상태의 의미를 더 내포한다.

“나, 이런 사람이다 이거죠. 개네들은 주목받기 위해서만 행동해요.” (js, 고 5번), “욕 많이 하면 무서워 보일까봐. 네 근데

표 2. 체험된 몸(신체)

생활세계	경험의 구조	현상	의미
몸(신체)	나와 다른 행동을 하는 몸	담배피우고 술 마시는 몸	담배, 술 등의 나와 다른 행동을 하다.
		잡아주지 못하는 몸	방황, 가출, 방탕 생활을 하다.
	나쁜 몸으로 경계(經界) 되는 몸	나쁜 몸.	나쁜 몸으로 그들을 경계(經界)하다.
		착한 아이들 괴롭히는 몸. 화장하는 몸.	
	나쁜 행동을 권(勸)하는 몸	나쁜 행동을 권하다	담배, 술 등의 나쁜 행동을 권(勸)하다.
	경계(警戒)받는 몸	지적(指摘)당하고 몰려다니다.	교사에게 지적받으며 걸리는 몸이 되다
		학교 안가고 교육센터 가는 몸	경계(警戒)를 받아 학교보다는 다른 공간에 있는 몸이 되다.
		반성문 쓰는 몸	징계를 받고 반성문을 쓰다
호기심으로 행동하는 몸	호기심으로 하지만 잘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몸.	호기심에 하는 행동이지만 잘 못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다.	
주목은 끌지만 관심 받지 못하는 몸	나는 이런 사람이다 보여주는 몸	순간적인 주목은 받지만 관심 받지 못하다.	

그걸 또 따라 해요.” (db, 초 1번), “직접 술을 마셨다고 자랑까지 하던데요.” (jy, 초 2번), “호기심에 그런 행동하는 것뿐이죠.” (jdy, 중 2번), “호기심에 행동하고 지들끼리 몰러다녀요.” (hj, 초 7번), “그런 행동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하는 거겠죠.” (se, 초 3번), “청소년 시기에는 호기심으로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관심을 못 받으면. 소용없죠, 아마도 부모님께 관심을 못 받는 아이들일 거예요.” (jm, 고 4번)

경계보다는 감정에 관한 태도로서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비행도래는 방황하고 잡아주지 못하는 청소년이 되고 알아서 날아다니는 하루 종일 방황하는 자가 된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언급하였다.

“잡아주지 못하는 청소년이죠, 개네들은 알아서 날아다니는.. 그래서 비행청소년이었고, 잘 잡아주지 못하는 청소년이요” (wr, 고 2번), “방황자죠, 하루 종일 방황하는 자예요.” (js, 고 5번)

(3) 체험된 시간성

연구 참여자들은 비행도래들이 반복되는 나쁜 행동을 통해 오히려 하지 말라는 행동을 더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비행도래의 반복적이고 나쁜 행동들이 선생으로 하여금 그들을 더욱 세계 체벌하게 된다고 경험하고 있었다. 반복적 행동 속에 계속되는 지적(指摘)으로 징계가 하나 더 붙기도 한다. 여기서 지적(指摘)되고 주의 받는 경계(警戒)가 작동한다.

“그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라도. 반복적으로 나쁜 행동을 할 거예요.” (sse, 중 1번), “아마도 중독되어서 더 그럴 거예요.” (skj, 중 5번), “개네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선생님들이 더 세계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니까..교사의 체벌이

이어질 수밖에 없죠. 멋있는 줄 알고 계속 한다니까요. ....네... 왜냐하면 청소년 때는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해요. 계속 비행에 빠져들면 안 되는데.” (jdy, 중 2번), “학교규칙이 불공정할 때, 방향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개 기려고 막 그러니까요.” (jde, 중 3번), “고등학교 때요? 예. 개는 전(前) 학교에서 한번 걸리고 전학 후 또 걸리고. 한 달간 사회봉사명령 받았어요. 그 친구는 일주일 받았구요. 개는 징계 하나 더 붙어서 한 달 더 받았어요.” (jm, 고 4번)

반복적인 행동 속에서도 비행도래들은 각기 다른 분기점을 그리며 달라지거나 혹은 달라지지 않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연구 참여자들은 체험하고 있었다. 여기서 반복이 시간 속에서 존재한다면 반복을 통한 비행도래의 변화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초등학교 때는 그냥 장난치면서 놀고 친구관계를 맺는 것 같은데 중학교 때는 장난보다는 공부를 하게 되죠. 사춘기잖아요. 아무래도 감정기복이 크니까 성격이 좀 그런 애들을 만나면 소심했던 애들 갑자기 그렇게 변하고 친구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skj, 중 5번), “그런데 나쁜 친구들 만나면 나쁜 길로 빠지니까. 아무래도...” (hj, 중 6번), “착한 친구들과도 노는데 착한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 때문에 나쁘게 변해요.” (ay, 초 8번)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향이 달라지죠. 아무래도.” (jh, 고 1번), “이 친구 때문에 장래희망이 달라질 수 있고” (jm, 고 4번), “친구 때문에 자기 미래가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하죠.” (wr, 고 2번), “미래가 바뀌고, 자기 습관이 달라질 수 있는데... 원래 놀던 애들하고는 말썽을 잘 부렸는데, 새롭게 만난 사람들하고, 춤에만 열중하니까 그건 것도 안치고. 사고 같은 것도 안 치고.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애들이 있긴 있죠.” (js, 고 5번), “비행했던 애들이 특히 고 2때 마음잡고 많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ch, 고 3번).

표 3. 체험된 시간성

생활세계	경험의 구조	현상	의미
시간성	반복(反復)되는 행동 속에 계속되는 경계(警戒)	반복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다. 하지 말라할 때 더 하다.	반복되는 나쁜 행동 속에 징계를 하나 더 받는다.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더 하다.
	변(變)하다.	나쁜 친구들로 인해 나쁜 길로 빠지다.	나쁜 친구들로 인해 나쁘게 변하다.
	변화(變化)로 달라지는 시기	친구들에 따라 성향과 미래가 달라지다	새 친구와 관심사에 집중하면서 성향이 달라지다
		비행도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마음잡고 공부하다	규칙이 엄격해면서 나이별 또래관계가 변화하다.
	통(通)하는 시간	또래관계에 더욱 집중되는 시점이 달라지는 시점이다	생각이 많아지면서 또래관계에 더 집중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서로 의견이 통할 때 달라지다	서로 통하는 시간만큼은 친구로 인해 변화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비행또래로 인해 착한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로 변한다고 하면서도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친구들로 인해 새롭게 바뀌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기가 또래관계에 대해 집중하는 시기로서 규칙과 같은 여러 상황들이 작용하여 비행또래에게는 새로운 계기로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기에 비행또래들의 행동변화를 체험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때는 남자애들이랑 안 놀고 따로 놀고 이랬는데, 커가면서 장난도 치고, 초등학교 때는 남자애들이 때리면 엄마한테 가서 이르고 막 울고 그랬는데 크면 막 때리면 같이 장난치고 막 때리고.” (jy, 중 7번), “초등학교 때는 아까 말했듯이 생각 없이 놀고요, 중학교는 조금 조절하면서 놀고, 고등학교는 능수능민 이런 것 때문에 완전 열심히 공부할 것 같아요.” (jdy, 중 2번), “초등학교 때는 남녀상관 없이 막 놀다가, 중학교는 좀 이렇게 서로 신경 쓰면서 놀면서.” (skj, 중 5번), “초등학교 때는요,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에서 규칙이 좀 더 엄격해지는 것 같아요.” (sse, 중 1번), “일단 청소년기가 되면 일단 생각이 많아지니까 뭐지? 만약에 공부 잘하는 애와 친구하면 공부 잘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wr, 고 2번), “고학년이 되면 더 어려워지겠죠.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보다는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여러 초등학교에서, 이래저래 중요해질 것 같아요.” (sb, 초 4번).

동시에 변화하지 않는 비행또래들도 있음을 체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비행또래들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통(通)하는 시간이 있음을 알려준다. 통하는 시간만큼은 비행또래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대로. 똑같아요.(학생모두), “똑같아요. 바뀌지 않는 다. 그대로.”(jdy, 중 2번), “그런데 의견이 서로 통할 때는 달라질 수 있죠.”(yl, 초 5번)

(4) 체험된 관계성

연구 참여자들이 체험한 비행또래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관계로 그들끼리의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울어지는 관계라고 하였다. 기울다는 것은 마음이나 생각 등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으로 서로 통(通)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통(通)하다’는 어떤 행위가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어떤 곳으로 까지 이어진다는 뜻이다. ‘끼리끼리’라는 유사성이 비행또래 간에 존재함을 알려왔다. 앞서 공간성에서 제시한 피(避)한다와 관련해 상반된 균열이 발생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비행또래를 선택하지 않고 피하고 하지만 비행또래들은 서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기울어진다는 것이다.

“개네들은 피해를 주죠. 비행또래는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요. 비행또래는 그런 거죠. 음주 흡연 같은 것은 자기관리 하면 되니까.. 그런데 비행또래를 그걸 선택해서 가는 애들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jm, 고 4번) “아님 친구, 친구 따라 같이 갈 수도 있고요.” (wr, 고 2번), “개네들도 서로 공감대가 있으니까. 또 개네들끼리 가는 거겠지요? 통하는 게 있다면 목표 같은 거, 일단은 연습을 해야겠다는 목표가 통하면 가능하죠. 이 세 명은, 애네들은 2년 넘었고요. 이 세 명은 1년 넘었구요. 서로 공감되니까 가는 거겠죠. 음주흡연을 이해하는 것은 통하는 것과 공감대의 문제이고요.” (jm, 고 4번), “비행또래에 허용적인 친구들은 서로 어울리는데, 개네들은 똑같은 스타일, 끼리끼리예요.” (se, 초 3번) “비교당하기 싫으니까 끼리끼리죠” (jdy, 중 2번).

표 4. 체험된 관계성

생활세계	경험의 구조	현상	의미
관계성	피해 주는 일방적 관계	비행또래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비행또래지 자기관리하면 그렇지 않다.
	통(通)하는 관계	비행또래 방향으로 기울다	비행또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또래에 자연스럽게 가다.
		이해가 전제되다.	음주와 흡연행동은 공감대 문제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유사성과 대립이 공존하다	유사성으로 끼리끼리의 관계를 유지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막힌다.
	선택의 기준을 세우는 관계	기준에 의한 경계(境界)가 존재하다	선택의 기준을 세워 그들만의 기준을 만든다.
	징계로 형성된 관계	징계로 또래관계를 형성하다.	징계 받으며 친구와 친해지거나 친구 때문에 징계를 받기도 한다.
무관한 관계	나와 상관이 없다.	비행또래와 나와 무관한 관계이다.	

예컨대 음주 및 흡연행동도 관계성에서 존재하는 공감대의 문제라는 것이다. 선택의 기준을 세우는 연구 참여자들의 관계 속에서 기준에 의한 경계(境界)가 존재한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었다. 경계(境界)와 기준이 함께 공존하는 관계가 연구 참여자들이 선택의 기준을 세우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결정 혹은 판단에 있어 사물(事物)의 기본(基本)이 되는 표준(標準)이 되는 것이다. 선택의 기준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부 잘하는 친구나 성격 좋은 친구, 도움 많이 주는 친구를 사귀어야죠.” (y, 초 5번), “착한 친구요. 부모님이 나쁜 친구는 사귀지 말라고 하세요.” (se, 초 3번), “근데 소심하면 안돼요. 아무튼 피워보라고 하면 싫다고 할 거예요.” (hyj, 중 6번), “나랑 잘 맞는 친구이거나, 공감할 수 있는 친구들, 말을 하다가 맞장구 쳐주었을 때 그런 친구요.” (hj, 초 7번), “공부를 너무 못해서 안 돼요.” (jdy, 중 2번), “먼저 말 걸어주고.” (jyj, 중 7번), “친구랑 잘 맞아야 돼요. 물론 자랑 흡사한 게 많아야 돼요.” (sse, 중 1번), “(작은 목소리로) 거짓말하면 안돼요. 믿음이 안 생겨요.” (yds, 중 4번), “작은 일로 빠지거나 화내면 안 돼요. 마음에 담아두면 안돼요. 거짓말 하면 안 되고요.” (skj, 중 5번)

연구 참여자들은 비행또래들 끼리는 징계로 친해질 수는 있지만 나와는 무관한 관계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네. 징계 받으면서 친해지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친구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jh, 고 1번), “친구 도와주다가...징계를 받으니까. 그런데 일단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jm, 고 4번)

## 2.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

존재론적 구조에 대한 물음은 실존을 구성하고 있는 그것을 펼쳐 보이는 것이다. 연구 과정을 통해 접혀져 있는 비행또래의 구조와 의미를 그 자체로서 펼쳐볼 수 있도록 연구자는 노력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비행또래는 경계에 서 있는 공간, 경계 받는 몸, 반복되는 행동 속에 계속되는 경계, 통하는 시간, 선택 기준을 세우는 관계, 무관한 관계 등으로서 경계(境界), 경계(經界), 경계(警戒)의 경험이다. 그들은 세계-내-존재

로서 비행또래와는 다른 방향에서 거리를 두고 위치해 있으며 또 다른 배치를 통해 그들과의 보이지 않는 균열(龜裂)로 분기되고 있었다. 이 균열은 비행또래가 세계의 경계(境界, 經界, 警戒) 속에 서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비행또래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균열을 야기시키는 것은 연구 참여자들의 말처럼 술과 같은 나쁜 행동과 더불어서이며, 이를 통해 상반되는 두 순간 혹은 두 시간이 존재한다. 비행또래들의 반복적인 행동은 이런 시간 속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현존재의 실존성의 근원적인 존재론적 근거는 시간성으로서 이 시간성은 자신을 알려오듯이[12] 이러한 실존함 속에서 청소년들의 두 시간이 분할되는 동시에 두 공간이 다른 방향, 거리, 위치, 배치로 갈라진다. 두 시간의 분할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낯선 방식으로 존재한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비행또래와 선을 그어 피(避)하고자 하는 어떤 선택의 기준이 있음이 이를 말해준다. 나와는 다른 행동을 하는 몸으로서 비행또래는 연구 참여자들과는 같은 방향과 거리에 위치하기엔 어려워 보인다. 비행또래의 나쁜 행동으로 인해 경계(經界)가 되는 분기점에서 물려다니는 몸이 되다보니 비행또래는 경계(警戒) 속에서 지적당하고 걸리는 몸이 되고 만다. 인간을 나쁜 행동과 같이 선과 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의 것을 해롭고 치명적인 것으로 판단한 제한된 존재의 관점에서 가능하다. 반복되는 비행또래의 행동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식의 보여주는 행동이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존재는 동시적인 다른 공간 내에 있다. 즉 모든 청소년은 동시적인 다른 공간 내에서 공존한다. ‘세 경계(境界, 經界, 警戒)에 서다’는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비행또래가 떠맡은 그런 존재함의 한 방식이다. 여기서 어떤 가능성을 보게 된다. 공간을 경험한다는 것은 현존재의 삶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과 비행또래의 세 경계에 서다’는 우리에게 열린 사고로 비행또래의 경계를 가르며 연결의 힘을 통해 청소년들이 비행또래의 존재론적 구성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다.

비행또래는 경계(境界), 경계(經界) 그리고 경계(警戒)에 서있다. 즉 청소년의 비행또래에 관한 말의 구조

와 본질은 ‘세 경계에 서 있음’이다. 그러나 비행또래를 연구 참여자들과의 대립자로 동일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은 모든 지향적 체험이 있는 세계 내에서 교섭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자신의 존재인 근원적인 이해를 통해 세계를 만나고 있기에 세 가지의 경계(境界, 經界, 警戒)를 통해 비행또래의 구조 지어진 지평 속에서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실천의 개입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비행또래와 청소년 그들 사이를 긍정할 수 있는 것,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그들 사이의 긍정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아마도 비행또래가 실존하고 있는 그 구조의 방향, 거리, 위치, 시간, 관계들의 지평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비행또래들의 반복적인 행동이 시간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의해 구성된다고 한다면 반복의 질서가 가지는 동시성을 파괴할 그 무엇이 반복적 시간 속에 결합하여 새로운 질서로 탄생할 수 있는 긍정의 반복으로 만드는 것이다. 바로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비행또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공간에서부터 새로운 실존적 세계를 열어 밝혀 비행또래들이 나쁜 친구로서 나쁜 몸이 아니라 좋은 친구로서 좋은 몸이 되고, 세계-내-존재로서 새로운 시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교섭활동의 장이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됨으로써 청소년에게 결코 낮은 세계로서가 아니라 친숙한 세계로 방향은 기울어진다. 연구 참여자들에 의하면 비행또래들이 특정한 어떤 행동을 하게 된 배경에는 또 다른 주위의 실존적 세계를 지적한다. 즉 비행또래와 같이 나쁜 행동과 몸으로서 실존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실존 세계가 비행또래로서 살아가게 하는 어떤 가능한 조건이 있음을 체험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연구 참여자들은 비행또래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두 갈래의 변화로 경험하고 있었다. 통(通)하는 시간을 통해 이를 수 있는 새로운 결합과정이 이를 말해준다. 기준에 의한 경계(境界)가 존재하지만 그 기준에 의해 또 다른 경계가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결과와 판단에 의해 변화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체험한 관계성에서 실존하는 공감대의 문제라는 것이 바로 기준의 열쇠가 된다. 경계(警戒)받는 몸으로서 주목은 끝지만 관심

받지 못하는 비행또래들과 하나의 점(點)으로 통(通)하여 선(線)을 이룬다면 비행또래가 실존하는 세계-내에서 서로 간의 교섭의 장이 되는 하나의 면(面)이 생성된다. 삶은 끊임없는 변이의 선으로 특정하게 배치되며 계열화 되는 선을 통해 항구적인 과정을 거친다. 결국 이러한 차이의 선(線)을 통해 드러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은 하나의 면(面)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 면의 연결을 통해 흐름이 생산된다면, 그 흐름의 절단과 채취를 통해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는 면의 연결 형태가 비행또래의 또 다른 개입지점이 될 수 있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비행또래의 실존 및 세계를 들여다보고 그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그들과 교섭하는 청소년들이 언급하는 해석의 과정, 즉 말을 통해 그들의 세계 안에서 만나는 비행또래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물음은 “청소년이 체험하는 비행또래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었다. 연구의 참여자는 십대 청소년 총 20명이었으며 자료 수집은 연구 참여자와 심층면담, 참여관찰, 내용분석, 현장면담일지 등을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van Manen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생활세계의 네 가지 실존체를 구조화시키고 그 흐름에 맞추어 비행또래에 대한 구조와 본질을 분석하고 글쓰기를 시도하였다. 청소년의 비행또래에 대한 말의 구조를 해석학적 현상학적으로 분석하여 28개의 구성의미와 30개의 현상, 18개의 경험의 구조로 본질적 주제를 산출해 내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비행또래에 대한 구조와 본질의 의미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비행또래는 경계에 서 있는 공간, 경계 받는 몸, 반복되는 행동 속에 계속되는 경계, 통하는 시간, 선택 기준을 세우는 관계, 무관한 관계 등으로서 ‘경계(境界), 경계(經界), 경계(警戒)’의 경험이다. 그들은 세계-내-존재로서 비행또래와는 다른 방향에서 거리를 두고 위치해 있으며 또 다른 배치를 통해 그들과의 보이지 않는 균열로 분기한다. 균열은 친한 사이에 틈이 생기는

일로 본 연구에서 균열은 비행또래가 세 개의 경계(境界, 經界, 警戒) 속에 서게 되는 계기가 된다. 비행또래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균열을 야기 시키는 것은 연구 참여자들의 말처럼 술과 같은 나쁜 행동과 더불어서이며, 이를 통해 상반되는 두 순간 혹은 두 시간이 존재한다. 두 시간의 분할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낯선 방식으로 존재한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비행또래와 선을 그어 피(避)하고자 하는 어떤 선택의 기준이 있음이 이를 말해준다. 나오는 다른 행동을 하는 몸으로서 비행또래는 연구 참여자들과는 같은 방향과 거리에 위치하기엔 어려워 보인다. 비행또래의 나쁜 행동으로 인해 경계(境界)가 되는 분기점에서 비행또래는 경계(警戒) 속에서 지적당하고 걸리는 몸이 되고 만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처럼 보여주는 식의 비행또래의 행동이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존재는 동시적인 다른 공간 내에 있다. 즉 모든 청소년은 동시적인 다른 공간 내에서 공존한다. '세 경계에 서 있음'은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비행또래가 떠맡은 그런 존재함의 한 방식이다.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논의할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비행또래의 행동만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실존세계에서의 배치 자체가 반복된다는 사실, 그로부터 비행또래가 존재한다. 우리의 세계는 반복되는 배치의 점, 선, 면 등의 동선 관계들을 통해 어떤 구체적인 질서들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었듯이 몸(신체)라는 것을 통해서 비행또래의 실존의 의미는 세계에 속한 한 생명체에 내재적으로 심층을 이루면서 현상적으로 신체라는 단일체에 통일되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삶은 다른 몸(신체)들과 맺은 관계의 배치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차후 현실화된 비행또래의 몸(신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제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경계를 통해 존재하는 비행또래의 두 시간과 공간의 계열을 언급했다. 계열은 어떤 기준적인 항들로 인해 선택되어 지는 분기점이자 균열로서 자리하고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내-존재로서 실존하는 비행또래의 두 시간과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 그리고 이에 맞는 사회복지실천의 개입 프로그램이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토대로 접근하여 언어를 통한 구조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구조라는 것이 세계를 상정해 놓고 보는 표현의 문제이고 세계 속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며 의미로서 표현된 것이라면 어떤 점에서 보면 고정된 구조 속에서 비행또래를 볼 수 있는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마치 구조가 선재(先在)하고 그것이 복합체들로 된다고 말하는 듯 보인다. 구조의 무한한 복층을 고려할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된 현상들은 비행또래의 구조가 현실화 되어져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차후 연구에서 고정된 구조가 아닌 변화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존재론적 구조를 탐색해본다면 연구의 한계들을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문제 해결의 답을 찾기보다는 문제의 해(解)들로서 포괄하는 어떤 문제의 틀로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해 비행또래의 고정된 구조의 정체성을 파괴할 어떤 접근이 요구된다.

#### 참고 문헌

- [1] 김용수, 김성진, “소년보호과정 청소년의 비행인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12권, 제2호, pp.1-22, 2010.
- [2] 김하기, “사(師)”, 문학과 경계, 제3권, 제4호, pp.278-297, 2003.
- [3] 김해원, 열일곱살의 털, 사계절, 2008.
- [4] 김희화, “청소년 초기의 또래동조성과 비행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감독 및 친한 친구 비행의 중재 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7호, pp.127-147, 2009.
- [5] 나희덕, 그 복숭아 곁으로, 문학과 사회, 가을호, 1999.
- [6] 남영옥, 김정남,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12권, 제2호, pp.123-141, 2010.
- [7] 두산동아, 동아 새국어사전, 두산동아, 2013.
- [8] 박민선, “청소년 가출빈도와 비행 또래수의 변화 추정 및 두 효과 간 인과관계 검증”, 한국청소년

- 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pp.111-139, 2008.
- [9] 안주철, “국적”, 창작과 비평, 제32권, 제2호, pp.165-167, 2004.
- [10] 엄명용, “비행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청소년 비행 예측 요인의 발굴”, 한국사회복지학, 제42집, pp.254-289, 2000.
- [11] 유 하, 세운상가 키드의 사랑 1. & 3, 1995.
- [12] 이기상 역, 존재와 시간: 까치, 1998,
- [13] 이기상, 하이데거의 존재 사건학, 서광사, 2004.
- [14] 이남인, 현상학과 해석학, 서울대출판부, 2004.
- [15] 이상운, 내 마음의 태풍, 사계절, 2004.
- [16] 이장욱, “기하학적 구도”, 창작과 비평, 제32권, 제1호, pp.155-158, 2004.
- [17] 정익중, 이은주, “비행또래집단과 청소년비행 간의 종단적인 역동적 관계”, 사회복지연구, 제41권, 제1호, pp.119-145, 2010.
- [18] 한상연 역,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입문, 서광사, 2012.
- [19] 한상연, “살/몸으로서의 존재사건과 기술권력: 파쇼적 신체 및 거룩한 신체에 관하여”, 《2012 한국외대 철학연구소 학술대회 자료집》, pp.27-41, 2012.
- [20] 최승호, *빨쥐*, 세계의 문학, 여름호, 2006.
- [21] J. Goetz and M. LeCompte, *Ethnography and qualitative research design in educational research*, New York: Academy Press, 1984.
- [22] M. van Manen,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New York, 1990.
- [23] M. van Manen, “Writing Qualitatively or the Demands of Writing,” *Qualitative Health Research*, Vol.16, No.5, pp.713-722, 2006.

저 자 소 개

장 정 연(Jung-Yeon Chang)

정회원



- 1994년 2월 :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전문학사)
  - 1996년 8월 :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1999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11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12년 9월 ~ 현재 : 세계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중독행동, 사회복지철학, 청소년